

신기술인증제 2개로 통합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별로 운용해온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2006년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2개로 통합된다. 또 평균 22.1개월이 소요되던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2006년까지 10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기술인증제도 개선 ▲특허심사기간 단축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오명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된 신기술인증제와 특허심사기간 개선안은 수요자인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신기술인증제는 기술 분야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 certification)'와 제품 분야의 'NEP(New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로 나뉜다. NET는 과기·건교·환경부가 담당하고, NEP는 산자·정통부가 맡아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중기청, 베트남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개소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동남아 무역거점인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E-타운 건물 4층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열었다.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지 국가에 대한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와 기술교류지원, 현지 합작파트너 알선 등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입주기업들은 현지 마케팅전문가의 시장 정보, 분석과 법률, 회계고문의 자문, 공동 회의실 등을 제공받고, 베트남 단기 출장 업체도 임시 사무공간과 통역알선, 호텔 예약 업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하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마케팅지원처(www.sbc.or.kr, 02-769-6954)로 하면 된다.

중기청,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본격가동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와 중복신청 예방 등을 위해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해졌다. 중기청은 다른 정부부처의 기술개발시스템과 연계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방지 및 성과 분석, 사후관리 등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